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6.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4	3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백강희 부위원장,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조원희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임세혁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10	5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수직 주차선 관련 보도> 뉴스데스크 해당 보도에서 경차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타는 경차'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특별 성별과 차종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발언임. 이에 VOD 및 뉴스 기사에서 해당 발언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함	해당 표현은 취재 당시 주차장 현장에 등장한 운전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특정 성별과 차종을 연결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다만 보도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 표현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기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수정하였음. <26. 6월 조치>	'26.6월
보도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관련> 한화에어로 사고 관련해서 1일과 2일 보도를 했지만, <시시각각>에서는 6월 한 달은 선거 관련 내용이 많았음. 안전공업 사고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중 논의의 장이 없어서 아쉬웠음.	6월 29일 대전지방노동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별 감독 착수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고, 7월 2일에는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와 관련한 중간 수사 발표를 보도했음 <26. 6월-7월 조치>	'26.6월
교양	<대충봐도 꿀잼 이거봤슈 > 지역의 단신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편집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전체 프로그램만 보여서 쏘품으로 편집해서 올려주면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음.	대충봐도 꿀잼'은 지자체, 공공기관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기 때문에 해당 코너를 쏘품으로 가공해 대전MBC 유튜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오늘M>의 다른 코너들은 인턴 인력을 활용해 쏘품을 제작, 업로드하고 있음 <26. 7월 조치>	'26.5월
교양	<출연자 섭외 관련> 공영방송에서 주로 5060세대를 대상으로 편성되고, 젊은층은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인생내컷> 등 출연자를 섭외할 때 다양한 대상을 섭외했으면 좋겠음	7월 16일(목) 저녁 9시 대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오지랖보건실2>가 방송됐음. 7월 23일에는 금산여고, 7월 30일에는 노은고 학생들이 출연하는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 6부작으로 제작해 방송할 예정임. <26. 7월 조치>	'26.6월
총 건수		4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위원	조정현	대전위캔센터장	대전YWCA	여성단체	26.5.1~28.4.30
위원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6.5.1~28.4.30
위원	김혜영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권단체	26.5.1~28.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여성 축구 관련 보도> '대전 하나 여성 풋살대회 참가팀 모집' 보도에서 '지역 여성 축구 활성화'를 위해'라고 표현했는데 자칫 여성 축구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분야로 보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지역 여성들의 축구참여 확대를 위해'라는 표현이 바람직해 보임.	스포츠 여성 풋살 관련 보도에서 성을 구분하는 표현보다는 중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 제목 표기 관련> '황운하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해야"...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에서 이름 바로 뒤에 수사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 제목이나 자막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수사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좋겠음	황운하 의원 다음 문구에 "사유화 부분 수사 촉구"까지 따옴표(" ")로 구분해 놓았지만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		
보도	<0시축제 관련 보도> 0시축제 관련 보도를 봤는데 폐지 여부를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함. 예술계 뿐만 아니라 시민들,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도 같이 담아 균형잡힌 보도를 해주길 바람.	대전MBC는 대전시 인수위에서 언급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도를 해왔음. 이번에는 예술 부문에 포커스를 두어서 보도했는데 성과나 다양한 부분을 폭 넓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음	○		
보도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관련> 한화에어로 사고 관련해서 1일과 2일 보도를 했지만, <시시각각>에서는 6월 한 달은 선거 관련 내용이 많았음. 안전공업 사고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중 논의의 장이 없어서 아쉬웠음.	한화에어로 폭발사고가 지방 선거이틀 전에 발생하면서 취재 인력 부족으로 선거 보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음. 추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		
보도	<대전시 재정 관련 보도> 인수위 과정에서 마치 문화예술 분야가 시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반복 보도돼서 불편했음. 파탄이라는 용어도 보도자료에 의한 표현이었겠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인수위에서 대전시의 재정 위기를 강조하면서 발표하는 워딩을 따오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 자료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할 때는 극단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들과 논의하겠습니다.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평촌지구 용지공급 관련 보도>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조성 용지 공급 보도에서 대덕구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음. 국힘 충청권 의원 시도지사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일방적” 기자회견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평촌 산단과 도안 일대 산단들이 없어지는 이슈들도 민감하게 다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됨.	평촌 지구 관련 보도는 35초짜리 단신 보도로 분량이 본격화 된다는 예고차원의 보도였음. 나노 반도체 산단도 입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전 산단들의 분양 진행 상황 등을 후속 보도하겠음. 산업단지에 대한 메리트나 지원책에 대해 기자들에게 전달해서 살펴보고, 반도체 투자에서 대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시 적극 검토하겠음.	○		
보도	<학교 폭력 토론 관련> <시시각각>에서 ‘학교 폭력, 근본적 해법은?’ 내용을 봤는데 요즘 학교 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박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뤄주길 바람.	도박 게임에서 시작해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실제 있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시 아이টে으로 선정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		
보도	<xx자막 표시 관련> 업주가 배달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 보도에서 배달기사가 “사장님 순살xx 오래 걸려요? 하면서 xx가 빠-처리되었고, 그 뒤에 업주의 욕설과 함께 또 xx로 빠-처리돼서 앞쪽에 배달기사가 말한 xx가 욕설인지 브랜드명인지 혼란스러웠음.	배달기사 말을 ‘순살xx’로 표시한 이유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순살땡땡’이라는 전제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되는 메뉴명이었음. ‘xx’가 욕설로 오인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OO’ ‘이나’ ‘△△’등 세심하게 다른 표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음.	○		
보도	<여러 발언자의 자막 처리 관련> 여러명의 발언자가 동시에 등장해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 자막 색깔을 다르게 구분했는데 음성도 번조되고 화면도 불러 처리가 돼서 어떤 발언을 누가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음 (백강희 위원)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자막으로 표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시청자들이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고민하겠음	○		
보도	<수직 주차선 관련 보도> 뉴스데스크 해당 보도에서 경차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타는 경차’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특별 성별과 차종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발언임. 이에 VOD 및 뉴스 기사에서 해당 발언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함	해당 표현은 취재 당시 주차장 현장에 등장한 운전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특정 성별과 차종을 연결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다만 보도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 표현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기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수정하였음.	○		
교양	<인생내컷-조웅래 회장 편> 조웅래 회장편 내용중에서 회장이 직접 신규 상품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광고성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비중도 크게 느껴졌는데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기획하고 반영했으면 좋겠음	보는 사람에 따라 광고성으로 볼 수도 있고 특이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절대로 광고할 의도는 없었고 제작진이 회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특이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취지를 생각하면서 구성하는데 노력하겠음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출연자 섭외 관련> 공영방송에서 주로 5060세대를 대상으로 편성되고, 젊은층은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인생내컷> 등 출연자를 섭외할 때 다양한 대상을 섭외했으면 좋겠음	<인생내컷>은 스토리가 많고 60분 물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함. 그러다보니 연륜있는 분들의 출연이 많은 것임. 젊은 층의 문화, 스토리는 <오늘M> 코너 등에서 소개가 가능하며, 7,8월엔 10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지랖보건실2>를 방송할 예정임	○		
교양	<자막과 내레이션 불일치> <인생내컷> 임재호 명장편에서 내레이션으로 ‘전북 제과제빵 명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막은 ‘전국 제과제빵 명인’으로 표기가 되었음. 시청자들에게 명장에 대한 인식 혼란과 출연자의 경력에 왜곡될 우려가 있었음	<인생내컷> 임재호 명장 편은 전주 MBC에서 제작한 것임. 내레이션과 자막이 틀렸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전주MBC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음.	○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관련 후속 방송> <인생내컷>은 한 사람의 삶과 철학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방송 종료 후 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후일담 등을 쿠키 영상으로 프로그램 뒤에 붙여서 지역의 자산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람.	<인생내컷>에 출연했던 분들의 방송 후의 변화나 근황 등을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어서 클립 영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사 제작회의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		
교양	<지역 공간 소개 관련> 소제동에서 신안동으로 옮겨진 철도청 자체 보급창고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조명해 주고, 또 대흥동 뽕죽집 등 제자리를 잃거나 최근 대전시에서 매입한 대전부청사 등의 공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음.	대전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대흥동 공간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조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6년 6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백강희 부위원장,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조원희 위원,

조정현 위원, 박지현 위원, 김혜영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임세혁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6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7분이 참석 예정입니다. 김욱 위원장님은 학교 연수 일정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잠시 후 백강희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5건입니다. 보도 내용 불만 1건, 홈페이지 이용 불만 1건, 기타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사고와 관련한 진행 사항이 있어서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기사화가 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의견 진술 결정을 받아서 저희 관련자들이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서면 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행정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는 별도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다음은 김욱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시느라 애쓰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석자가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현 위원

뉴스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도 함께 봤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하게 6월 1일 <뉴스데스크>에 ‘대전하나 여성 풋살대회 참가팀 모집’ 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성 축구 활성화를 위해’ 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평소에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자칫하면 여성 축구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분야로 보는 듯 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축구 참여 확대를 위해’ 라고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주체라는 느낌이 훨씬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순수 아마추어’ 라는 표현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스포츠 기사에 자주 쓰이긴 하지만 약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단어이다 보니 ‘비선수 출신 팀’, ‘일반 동호회로 구성된 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무심코 쓰는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는 6월 11일 <뉴스투데이>인데요. <뉴스데스크>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황운하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해야”... 경찰 수사 착수’ 라는 보도 제목이었는데 보도 제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황운하 의원이 이장우 시장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는 건데 제목만 보면 황운하 이름 바로 뒤에 수사라는 말이 붙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황 의원이 수사를 만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았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이름 뒤에 따옴표 쳐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긴 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확인 못하고 영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운하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제기... 경찰 수사 착수’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수사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내용은 안보고 제목이나 자막만 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니까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4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0시 축제 폐지 논란 관련 보도였습니다. 일단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전시에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존폐 여부를 떠나서 보도 내용에서는 지역 예술계 분들의 목소리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예술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당연히 다뤄야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의 생각도 같이 담았으면 훨씬 더 균형 잡힌 뉴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곧 8월이라 0시 축제가 다가와서 정책 결정이 빨리 내려질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송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확한 자료로 같이 내보내주 시면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위원
6월 1일과 2일에 보도된 내용(한화공장 폭발 사고)인데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대전에 사는 많은 시민들도 걱정하는 면이 크거든요. 1일과 2일에 이어서 보도를 하면서 회사 측 설명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오고 정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시각각>이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6월 한 달은 중요 관심사가 선거이기는 했지만 <시시각각>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대전의 안전공업 사고나 현재도 진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심층 보도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 해소해 주는 내용으로 주제를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유성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리 과정이나 이후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도 많고, 더군다나 방위산업체다 보니 정보가 제한적이거든요. 이 사고가 이번만도 아니고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대전의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된 논의의 장이 없었다는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내컷>은 애청자로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6월 28일 ‘선양 소주 조웅래 회장님’ 관련된 편을 봤습니다. 조웅래 회장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인터뷰나 기사가 많은 분인데요. 작년 5월에 이미 EBS에서 서장훈이 진행하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과 <인생내컷>의 구성 콘셉트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성공담과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이웃과 지역사회 공헌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방영

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던 분에 대해 <인생내컷>에서는 EBS와 다른 차원으로 기획되고 편성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 상품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이 너무 길게 방영되다 보니 ‘이건 광고성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청자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광고 유튜브를 찍는 장면이 <인생내컷>에서 원래 다루려는 내용에서 비중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원래 <인생내컷>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섭외하고 기획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TV프로그램은 공영방송도 그렇고 대부분 5060을 대상으로 많이 편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젊은 층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소비하는데요. 그렇더라도 공영방송인 만큼 <인생내컷> 등 프로그램 출연자를 섭외할 때 대상을 더 다양화해서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아니고 지역 공영방송이 기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의 콘텐츠들을 알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 내고 소비되는 과정으로서의 공영방송도 의미가 있는데요. 세계의 지역 소식을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로컬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여행 프로그램과는 달리 세계 다른 로컬에서 이야기되는 시민들의 이야기들과 관련 정보들을 대전 시민들도 알 수 있는 방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M>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충청 지역의 여러 소식과 좋은 이야기 콘텐츠들을 듣는 것도 좋지만 세계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주제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달에는 <오늘M>을 시청하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생내컷>을 시청했습니다. 6월 14일에 방송된 132회 ‘빵에 온 마음을 담다 제과제빵 명인 임재호’ 편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야에 오랜 시간 묵묵하게 장인 정신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담아냈다는 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제빵사의 삶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50년 동안 함께한 그 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삶의 가치를 하나 더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주시려는 부분들이 대전MBC가 추구해야 되는 공익적인 가치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을 내세우기보다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점을 담아낸 것을 보면서 출연자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완성도와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송 초반 1분 8초경에 성우 내레이션은 ‘전북 제과제빵 명인’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자막은 ‘전국 제과제빵 명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명장, 명인을 지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과점 앞 현판에 ‘전라북도 협의회’라는 민간단체 직인이 찍혀 있어서 내레이션과 자막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레이션과 자막, 또 현판이 서로 다르게 전달되면 보통 시청자들은 명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인, 명장이라고 인식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출연자가 지역 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경력과 업적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명인이라는 표현은 원래 고용노동부가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 국가공인 제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받았다는 자격의 우열을 가리자는 건 아니지만 주관 기관이 지자체도 아니고 사적인 협의회에서 주는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청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는 게 공영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막과 내레이션의 일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전라북도협의회 선정 제과제빵 명인’처럼 주관 기관도 함께 표기해 주었다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고 임재호 명인의 실제 업적과 명예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생내컷>처럼 지역의 훌륭한 장인, 또 숨은 인물을 꾸준히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부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가족센터에서 현장을 돌다보면 청년들과 부모, 조부모들, 다문화 가족들, 1인 가구 등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M>이나 <인생내컷>에서 이런 다양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도 재조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이야기를 자주 담아주시면 우리 지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원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그 동안 보도 내용을 위주로 의견을 내다가 교양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게 <인생내컷>입니다. 앞서 박지현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과 상당 부분 중복된 의견들이 있어서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내컷>을 정의한다면 지역에서 한 분야를 꾸준히 지켜 오신 분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철학을 조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요즘과 같이 자극적인 방송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방송이 끝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그러한 사람이 소개가 됐다는 감동은 있는데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도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과제빵 명인이 소개가 됐다고 하면 그 기술을 배운 후배나 지역 제과업계 이야기도 같이 다뤄주는 것이고요. 또 택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현실이라든가 전수 과정 이후 그들의 진로 같은 것들이 함께 담어진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미래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방송 이후 연결이라는 부분인데요.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인물들이 한 번 방송되고 나면 그 분들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방송 이후 그 분들이 삶을 받아들이는 변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청자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같이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프로그램 뒤에 영화 쿠키 영상같이 붙인다면... 물론 제작 여건상 한 번 진행 했던 분들을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를 따고 반응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내컷>이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의견을 준비했으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지난 한 달 선거 방송이나 그 과정에서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래에도 시청자 위원이다 보니 조금 더 여러 기사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MBC가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부분의 오류들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나름 시청자 위원으로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법적 제재가 아니라 권고 형태로 정리돼서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부분들을 잘 마련해 가면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방송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인수위 과정에서 음악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 건립하는 부분들이 마치 문화예술 분야가 시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계속 반복 보도돼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전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인수위 보고회에서 올해부터 폐기된다고 오늘 언론 보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파탄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물론 인수위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보도 자료에 의해서 보도 하겠지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0시 축제나 음악 전용 공연장들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나 안 하느냐를 떠나서 민선 8기에서 어쨌든 막대한 세금이 투여돼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정성들을 더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난 3년간 투여된 예산이나 브랜드 가치, 다양한 성과 혹은 불편한 점 등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BC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는 <인생내컷>과 <오늘M>을 더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인생내컷> 133회 ‘생활연극인 김명옥’님의 방송을 봤는데요. 실제 대청호 로컬이나 네트워크 활동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지난해 그 분이 생활하시는 농장에서 진행되는 생활 연극 축제 현장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원주민은 아니고 이주민이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술과 삶을 함께 이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방송이 돼서 공감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생활연극인 김명옥’으로 뽑았는데 실제 전업예술인과 다른 생활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이 분의 삶이 본인의 예술 활동과 연극 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조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 분은 지금 대청호 주변에 로컬 푸드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가볍게 다뤄지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더 명확하게 <인생내컷>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을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좋은 분들을 발굴해 소개해 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시대적인 관심 등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M> ‘오늘 쉼터’ 코너에서 카리용을 소개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대전에 건립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고, 국내 유일의 카리용 연주자가 계시거든요. 실제 연주자께서 연주하는 모습들이나 그 의미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대전시민 분들에게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쉼터’ 코너를 통해서 대전의 작은 공간들 혹은 잘 모르고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자리를 떠난 대전의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동광장 소재동쪽에 있던 철도청의 자재 보급 창고가 맞은편 신안동 쪽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직 그 쪽에 공원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버려져 있는 건물처럼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는 모양새로 있습니다. 그 곳은 대전역을 오가는 분들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활용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흥동의 뽕죽집이 있는데요. 2029년도가 그 집이 지어진 지 100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최근 그곳에 직접 살았던 일본인 후손들이 방문하는 등 일본 분들이 도리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원래 위치로 옮겨지면서 오토바이 거리 쪽에서 찾아보기 힘든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잃거나 최근 대전시에서 매입한 대전부청사 등의 공간들에 대한 관심들도 보도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향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옥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보도국에서 실수로 일어난 방송사고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조성 용지 공급’ 보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 필지가 44필지이다 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대덕구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없었고, 대덕구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등도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설에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단계 등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그제 핫이슈가 됐던 ‘국힘 충청권 의원 시도지사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일방적” 기자회견 내용’의 보도도 있었고, 대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평촌 산단과 도안 일대 산단들이 다 없어지는 이슈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시각각> ‘학교 폭력, 근본적 해법은?’ 내용을 봤는데요.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 폭력까지 가기 전까지 도박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박 게임이 ‘참교육’ 드라마에서도 사용할 만큼 있다고 하니 <시시각각>에서도 한 번 다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내컷>에서 선양 소주 조용래 회장님이 나왔는데요. 이 분이 극복한 내용들이라든지 지역 사회 공헌 내용들을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6월 26일자 보도 아이템 중 하나가 배달 기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업주가 배달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에 대한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자막에서 다소 시청자가 보기에 오해하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가 하신 말씀인데 “사장님 순살xx 오래 걸려요?” 라고 나오면서 xx가 빠-처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보도 자체는 배달 기사가가 아닌 업주가 욕설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가 보기에 xx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빠-처리가 동일하게 업주의 욕설과 함께 처리되다 보니까 누가 욕설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배달 기사분이 하신 말이 xx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욕설인지 아니면 브랜드명이라서 xx로 처리하신 건지 그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약간 더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도에서 자막으로 처리하실 때 발언자가 여러 명이 등장해서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 흰색과 파란색으로 다르게 구분해서 표기했는데 음성도 변조가 되고 블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인지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해 청소년인 중학생이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언자가 여러 명이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해자의 발언이고 어떤 부분이 피해자의 발언인지가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막에서는 색깔 구분도 중요하지만 누가 한 발언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보도에서 편집상의 간단한 오류이셨던 것 같은데요. 처음 영상클립 시작할 때 보통의 경우는 대전세종충남 뉴스부터 시작하는데 28일 보도는 서울MBC 뉴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편집이 덜 된 상태에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보도국장 공석으로 임시로 회의를 참석한 취재편집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미입니다. 우선 저희 뉴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포츠 여성 풋살 관련 보도에서 성을 구분하는 표현보다는 중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황운하’ 다음 문구에 “사유화 부분 수사 촉구”까지가 따옴표(“ ”)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말씀하신 황운하 의원 바로 옆에 수사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나갔던 뉴스를 휴대전화로 기사를 검색해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의미가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0시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전시장 인수위에서 매물 비용 17억여 원을 포기하더라도 올해부터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0시 축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 했었습니다. 보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인수위에서 0시 축제 언급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행사 개최 전, 행사 개최 중간, 행사 종료 후까지 다양한 소상공인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0시 축제에서 지역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술계 쪽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내일 대전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앞으로 8월까지 계속 0시 축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0시 축제 폐지를 1호 결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나 다양한 부분을 더 폭넓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인수위에서 계속 재정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보도할 때 인수위 발표 워딩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탄’, ‘재정 위기’, ‘막대한 예산’ 이런 단어들을 인수위원장이나 당선인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파탄’이라고 발언했는데 저희가 파탄이 아닌 ‘위기’, ‘문제’라고 보도를 하면 오히려 발언을 왜곡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자료에 근거해서 기사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국 기자들과 논의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바로 이틀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인력적으로 충분했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또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도 다 했으면 좋을 텐데요. 제한된 인력으로 일단 첫날과 둘째 날 사고 관련된 부분과 그동안 반복됐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도를 했는데, 일단 선거 보도와 개표 방송을 잘 치르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노동 당국에서 어제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도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아쉬웠던 부분들을 담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 관련 보도는 2단계 분양이 시작됐다는 35초짜리 단신 기사였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본격화된다는 예고하는 차원의 보도여서 구체적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노 반도체 산단 같은 경우에 산단 지정은 되어 있지만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에 있는 산단들의 분양이라든지 진행 상황 등을 후속 보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기본적으로 그 산단이 저희 기업체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치를 바꿔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도 없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거기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화 공단이 전기 용량이 딸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호남 쪽에 반도체가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취재편집부장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터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만한 메리트나 지원책이 없다는 부분은 담당 출입 기자들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취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의 경우, 충북 청주와 천안 아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대전은 빠진 게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대전시장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지역인데도 대전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느냐 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취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박 게임으로 시작돼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고,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을 해 봤고 중독이 우려된다는 신고들을 실제로 접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아

백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기사 리포트 관련해서 저희가 순살xx를 표시한 이유는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의 ‘순살땡땡’ 이라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특정되는 메뉴명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의 의견도 그렇고 간접 광고나 한 업주 때문에 전체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xx를 했는데 ○○나 △△로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욕설이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 xx를 하고 음소거 처리를 했고, 그 부분은 욕설은 아니지만 업체가 특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xx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표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언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색상을 다르게 해서라도 대화 오디오가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짧은 시간에 말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색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색상 표기를 달리하고 그 옆에 사람까지 넣을 수가 없

어서 사람은 윗부분에 표기를 하고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괄호로 다양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시청자들이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고민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이번 달 4편이 방송된 <인생내컷>중에서 두 편은 대전MBC가 제작했고 충북과 전주가 각 한 편씩 제작했습니다.

박지현 위원님께서 <인생내컷> 조운래 회장 편을 보시면서 작년에 EBS에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고 콘셉트나 차별화된 기획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전MBC에서 주로 인물 다큐에 많이 다뤄지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 한산모시 방연옥 장인, 성심당, 조운래 회장, 우금치 등 박지현 위원님께서 대전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런 구성들이 조금 편에 익는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새롭게 정착한 분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신제품 광고 장면이 선양 광고를 해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신규 제품을 광고하는데 회장이 직접 출연해서 광고를 만드는 게 특이하네’, 또 ‘아낀 돈으로 병당 50원씩 기부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재미있게 보면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제작진은 절대 광고할 의도는 없었고 회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특이하게 봐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에 만들어진 조운래 편에 비해 그 부분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취지를 생각하면서 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인생내컷>은 스토리가 많고 60분물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륜 있는 분들의 출연이 많은 것이고, 젊은 층의 문화나 스토리는 <오늘M>코너 등에서 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8월까지 대전 대덕구 편을 시작으로 1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오지랴 보건실 2>가 방송 되는데요. 다음 달에는 <오지랴 보건실 2>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생내컷> 임재호 명장은 전주MBC에서 제작한 건데요. 내레이션과 자막이 달랐다는 부분은 전주MBC 담당 제작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세대의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점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0분 정도에 적합한 인물은 <오늘M> ‘오늘 쉼터’ 코너가 있는데 그동안 대장장이, 수제 맞춤형 양복점, 올드카 수리 장인 등이 나왔는데요. 10분 정도 내레이션 없이 인터뷰나 영상으로 흘

러가게 구성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쉼터’ 같은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나 우리가 눈으로 차별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굴해 내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인생내컷>에 출연했던 분들의 방송 후의 변화나 근황도 시청자들은 궁금해 할 수 있어서 클립영상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전MBC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서 고민스러운데요. 3사가 모여서 제작회의를 할 때 대전MBC 담당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 구구농원 김명옥 대표님은 MBC충북에서 제작한 겁니다. 박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MBC충북에 전달하겠습니다. <인생내컷>은 전적으로 외주가 아닙니다. 방송국 PD와 작가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구성안을 작성 하고 구성안이 나오게 되면 VJ 감독이 촬영과 기본 편집을 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PD가 최종적으로 자막 작업과 후반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M>에 나왔던 카리용 연주자도 ‘오늘 쉼터’에서 10분 정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인 혜전대학 설립자가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북에 어머니를 두고 내려와서 약간 사모곡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M>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는데 수요일은 활동적으로 ‘땀나는 여행’이라고 한주희 아나운서가 직접 가서 체험하는 내용이고, 목요일은 그에 반해 ‘오늘 쉼터’나 문화계 소식 등 차별화된 콘셉트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대흥동 공간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대흥동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대전 시민들도 알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제작진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인생내컷>이나 <오늘M>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진 인프라국장

DMB 방송 휴지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DMB는 2005년에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젠 휴대폰 단말기에도 수신칩이 다 사라지고 내비게이션도 법적으로 이동 간에는 시청 금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무용지물이 된 플랫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MBC, KBS, SBS 모두 DMB는 폐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방미통위에서는 일단 방송국의 폐국 건의를 보류하고 폐국 논의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것처럼 방미통위 대전사무소 신청을 통해 방송 보조국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휴지에 들어가면서 전파를 중지합니다. 방송 보조국은 메인 중계소인 식장산에서 전파를 송출했을 때 커버하지 못하는 공주, 천안, 아산, 서산, 보령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간이중계소입니다. 보조국의 6개월 휴지기간 동안 별다른 민원이 없으면 6개월 뒤에 완전히 방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DMB를 보는 분들이 있으시면 설명과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추가 질문이나 답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모니터링 할 때마다 시원한 사무실이나 집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제작하신 방송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송구하면서도 제 역할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뛰고 계신 제작진들 덕분에 저희가 많은 지역 이슈를 놓치지 않고 듣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 기획안이나 방송 소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사고 질문은 인사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히 다시 설명 드리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7월초쯤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보완은 이미 진행했고,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이상으로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